

누구에게 당신을 바치겠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연 누구에게...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 1:27).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았으면 그 복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롬 12:1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란 “살아 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본래 산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수가 없는데 제물되면서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 있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요, 죽었다고 하지만 살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롬 12:1 이것은 예배하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배 자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예배를 잘 드리는 기준은 떠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라도 떠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며 매를 들고 예배를 감독하는 선생님이 계셨고, 떠들면 예배 중이라도 뒤로 나가서 벌을 서곤 했습니다. 예배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인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바칠 것이냐? 하나님이나, 세상이냐?” 오래전 한국 교회에 철야기도가 한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철야기도가 유명하다는 어느 교회에 한 기자가 취재를 갔습니다. 그런데 철야기도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육교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철야기도 하면 무엇하느냐 하는 조롱 섞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러지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배입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여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구절은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디에 바칠 것이냐? 하나님이나,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우리 몸을 세상에 맡기고 사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사람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 바쳐진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기성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4권 6호 2018년 2월 11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박태열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건형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행정위원회, 사역장 및 성가대 임명식 (Commissioning)	
봉헌 (Offering) 71장 (새찬50장)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사회자
성경봉독 (Scripture) 창세기 3:15	다같이
성가대 찬양 (Choir Anthem)	예함찬양대
설교 (Sermon)	박태열 목사
부흥을 위한 21일 전교인 금식기도 세번째: 우리가 싸울 대상	
파송찬양 (Closing Hymn)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EM Worship / 1:15pm
[주중예배/모임]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다음주일 대표기도]
서병일 권사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부흥을 위한 21일 전교인 금식기도가 2월 5일(월)부터 25일(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임목사께 주시면 21일 금식기도 기간동안 기도하겠습니다.
- ◆ 이번주 수요일 2월 14일은 재의수요일입니다.
- ◆ “사랑의 삶을 이루는 세가지 사이클” 설교 시리즈가 담긴 mp3 CD가 나왔습니다.
- ◆ 2018년도 교회를 섬겨주실 행정위원회 및 사역조직표가 나왔습니다.
- ◆ 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 평신도교육이 2월 25일(일) 오후 5시에 갈보리교회에서 있습니다.
- ◆ 여선교회 주관 세계기도예배가 3월 2일(금) 저녁 8시에 있습니다.
- ◆ 기도스쿨이 3월 9일(금)부터 7주간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신청받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윤경재 성도께 신청하십시오.
- ◆ 가족수련회가 6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Maryland에 있는 Sandy Cove Ministries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연석윤 집사께 신청하십시오.
- ◆ 친교는 여선교회에서, 제단헌화는 류제인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부서별 소식

[선교부]

- ◆ 2018년부터 협력파송 선교사로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헌금봉투에 “문열림 주은혜 선교사 가정” 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 오늘 2시 30분에 선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선교회]

- ◆ 여선교회 신년하례회가 2월 18일(일) 친교후에 있습니다.

월중모임/행사

- 2월 5일(월)-25일(일) 부흥을 위한 21일 전교인 금식기도
- 2월 11일(일) 2:00pm Southern Region Day of Learning
- 2월 14일(수) 8:00pm 재의수요일
- 2월 18일(일) 1:30pm 여선교회 신년하례회
- 2월 25일(일) 5:00pm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 평신도교육
- 3월 2일(금) 8:00pm 세계기도예배
- 3월 9일(금) 7:30pm 기도스쿨 시작

지난주 일 통계

헌금총액	\$3,450	출석총인원	46
십일조	\$1,430	KM 본예배	39
주정(주일)	\$690	주일학교	7
감사헌금	\$1,000	EM 예배	
선교헌금	\$330		
주일학교	\$		
EM	\$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2월 친 교 / 헌 화

4	이미경권사 / 류제강성도
11	여선교회 / 류제인성도
18	조판순성도 / 조동숙집사
25	임순덕권사 / 마경희집사 김인자권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 (기쁨, 거룩)	